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특성과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정용경 · 황정임** · 최윤지 · 최정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Factors Aff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Young Farmers

Yong-Kyeong Jeong · Jeong-Im Hwang · Yoon-Ji Choi · Jung-Shin Choi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166 Nongsaea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nbuk,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gricultural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young farmers an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of young farmers. For the analysis, variables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managers and farm management were used, and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models were applied. The results show that young farmers have the advantages of high education attainment, high income, crop selection, large size of farmland and high utilization rate of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the low rate of specialized farming, passive participation in producer organizations, and low availability of agricultural machinery can be disadvantag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farmers,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ake use of their strengths and to make up for their weaknesses.

Key words: young farmers, agricultural management, management performance

1. 서론

2018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약 67.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비율은 44.7%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2000년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약 58세인 것과 비교하면 18년 사이에 우리 농촌이 얼마나 고령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농업 인력의 부족을 야기하고 농촌의 존속 문제에 직결된다. 농촌의 주민은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더 이상 영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농지가 남게 되며, 농촌의 인구 공동화, 농지 공동화(小田切德美, 2014)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유지시키고 환경 및 농촌사회를 보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임정빈, 2003). 그 중에서도 식량안보와 관련된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Arild Vatn, 2003),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농가 수와 생산자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최영창, 박은식, 고정숙, & 조영숙, 2007; 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그러나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에 남아있는 인력마저 고령화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농촌에서 영농을 이어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농촌부문에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주요어: 청년농업인, 농업경영, 경영성과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3502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 교신저자(황정임) 전화: 063-238-2648 e-mail: jihwang@korea.kr

시행해왔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1990년대부터 시작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통하여 일찍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추진해 왔으며,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창농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에의 청년 참여를 유도해왔다(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김기홍, 2018).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주로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 자립 경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키워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농가의 경영역량 증대를 위해서는 경영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장익훈, 문정훈, & 최영찬, 2014). 또한, 청년농업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장익훈, 문정훈, & 최영찬(2014)도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이 농업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2017)의 연구에서 청년 농가와 일반 농가의 영농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농가일수록 일반 농가에 비해 과수와 축산의 비율이 높았고, 농업관련사업에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규모는 일반 농가보다 컸으며, 농산물판매액도 일반 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농업인의 영농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지원책을 고안하는 데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명한 연구는 그 사례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특성을 비청년농업인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소득과 앞서 분석한 농업경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경영활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고, 이에 따라 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강대구, 정철영, 이종상, & 이성식(2005)은 농업 인력의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 인력을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계기와, 그들을 정착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유입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마상진, 엄진영, & 김경인, 2017). 김진모, 주대진, 길대환, &

황영훈(2011)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영농유예 및 학비상환자들의 정착 실패 원인으로 영농기반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소득 부족, 부모와의 갈등,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 등이 뒤를 따랐다. 청년농업인의 실패 원인에는 영농 자체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루어진 청년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 진입 및 경영의 어려움으로서 공통적으로 토지 확보의 어려움, 금융 접근성, 훈련된 노동 인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5; National Young Farmers Coalition, 2017). 특히, 유럽에서는 농기계 이용, 법적인 이슈 등도 주된 문제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는 고유의 제도적 특수성에 따라 학자금 융자나 의료보험 보장 문제 등도 제기되었다.

Zagata, L., & Sutheland L, A.(2015)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지역, 유형별로 다양한 청년농업인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금까지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가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중에서도 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2017)은 청년농업인에 초점을 맞추어 농가소득에 대한 영향요인을 개인 특성, 창농 과정, 영농 특성, 지역 특성으로 변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에서는 여성일수록,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미혼일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농 과정에서는 승계농, 농수산대 출신일수록, 사전 법인 경험이 있으며, 멘토가 있을수록, 준비자금 규모가 클수록, 농가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영농 특성에서는 영농경력이 길수록, 시설농업과 축산일수록, 농지규모가 크고, 법인에 참여하고, 경영장부를 기장할수록 농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서 농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찬주, 황진수, & 장동현(2008)은 수도작 농가의 경영자 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 연령, 경력, 컴퓨터 보유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농장의 전산관리, 인터넷 사용, 영농규모 확대 의향, 생산량, 판매가격, 경지규모 등의 농업경영 특성을 점수화하였으며, 연령이 낮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혁, & 고석남(2005)은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겸업, 영농지대, 지역접근성, 경영조직 유형, 경작규모 등의 농업경영 특성을 이용하여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소득의 경우 전업, 도시근교, 평야지대, 화훼, 채소, 과수농가에서 정

(+)의 결과를 보였으며, 경작규모에서도 정(+)의 결과를 보였다. 연령에서는 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학력수준은 중졸, 고졸에서만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황영모, 신동훈, & 배균기(2016)는 2000년도부터 2010년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농특성을 경영전략으로 보고 경영전략이 농산물 판매액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전체농가와 65세 이하 전업농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5세 이하 전업농가에서 주 작목의 경우 논벼가 아닌 경우와 영농규모가 큰 경우, 생산자조직에의 참여, 컴퓨터의 활용, 농업관련 사업 참여에서 정(+)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2000)는 농가경제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불균등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인 경우와 경지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증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amilton, W., Bosworth, G., & Ruto, E.(2015)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농업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분석하여 35세에서 45세 까지의 청년농업인에서 기업가적 성향이 큰 것을 발견하였고, 청년농업인일수록 농업 생산성이 높으며, 노동 생산성도 크게 증가한 것을 제시하며 청년 농업인의 경제적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Mohammad S, S.(2005)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 경지 면적, 기축 보유 여부, 가족 규모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주의 연령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농가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생산 기술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Mishra, A, K., & Morehart, M, J.(2001)에서는 농가 경영수익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교육과 경영 확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농가의 경영소득은 농가 자체의 재정적 성공의 척도로 사용되며, 영농 규모, 조직에의 참여, 교육 수준 등이 경영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hfaq, M., Hassan, S., Naseer, M, Z., Baig, I, A., & Asma, J.(2008)는 농업경영의 다각화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영 다각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 규모, 교육 수준, 농업 경력, 겸업 소득 및 농기계 보유 여부가 정(+)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중 만 18세 이상 농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재 청년 정책이 만 40세 미만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 만 40세 미만 농업 경영주를 청년농업인으로 정의하였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특성을 비청년 농업인과 비교하고, 청년농업인의 경영 성과로서 농축산물 판매 금액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 먼저 청년농업인과 비청년농업인의 경영특성 비교를 위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농축산물 판매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교육수준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세대원 수, 혼인 여부, 학력 중 연령을 제외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영농경력, 전·겸업, 작목, 농지규모, 조직 참여, 생산량, 판매금액, 농기계 보유 여부, 컴퓨터 활용 등의 변수들 중 영농경력과 생산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를 농업경영 특성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겸업 여부, 주 작목, 경작면적, 주 판매처, 판매 금액,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 융복합 사업 참여 여부, 농기계보유 여부, 정보화기기 활용 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였다.

먼저, 청년농업인과 비청년농업인의 경영특성을 분석한 교차 분석에서는 농업경영주 특성과 농업경영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농업경영주 특성으로는 성별,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교육수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대학(4년제 미만) 이하’, ‘대학(4년제 이상)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농업경영 특성으로는 전·겸업 여부를 ‘전업’과 ‘겸업(1종 겸업 + 2종 겸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주 작목은 ‘논벼’,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약용’, ‘화훼’, ‘축산’,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는 강혜정(2008)과 황영모, 신동훈, & 배균기(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범주를 참고하였다. 주 판매처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농협/농업법인’, ‘소비자 직접 판매’, ‘도매시장’으로 구분하

〈표 1〉 다항 로지스틱 모형의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 변인	청년농업인의 농축산물 판매금액		저소득(500만원 미만, 참조변인), 중소득(500~3,000만원 미만), 고소득(3,000만원 이상)
독립 변인	농업 경영주 특성	성별	남, 여(참조변인)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참조변인), 대학(4년제 미만) 이하, 대학(4년제 이상) 이상
	농업 경영 특성	전·겸업 여부	전업, 겸업(참조변인)
		주 작목	논벼(참조변인),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약용, 화훼, 축산, 기타
		경작면적	논 면적과 밭 면적의 합(ha)
		주 판매처	농협/농업법인(참조변인), 소비자 직접 판매, 도매시장, 기타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	참여, 미참여(참조변인)
		융복합사업 참여 여부	참여, 미참여(참조변인)
		농기계 보유 여부	보유, 미보유(참조변인)
정보화기기 활용 여부	활용, 미활용(참조변인)		

였으며, 나머지 변인은 ‘기타’로 구분하였다. 판매금액은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0만원 미만’과 ‘500~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¹⁾으로 구분하였다. 농업관련사업 중 농축산물 직판장 및 직거래, 식당 경영, 가공업, 관광 사업을 융복합사업으로 묶어 참여 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청년농업인의 농축산물 판매금액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농축산물 판매금액을 ‘500만원 미만’, ‘500~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으며, 편의상 500만원 미만을 ‘저소득’, 500~3,000만원 미만을 ‘중소득’, 3,000만원 이상을 ‘고소득’으로 명명하였다. 참조변인으로는 ‘저소득’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을 제외하고는 교차분석과 동일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청년농업인과 비청년농업인의 영농특성 비교

<표 2>와 <표 3>은 청년농업인과 비청년농업인의 영농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농업경영주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90.0%로 비청년의 8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청년이 75.2%, 비청년이 78.0%로 비청년이 높았다. 가구원 수는 청년농업인이 3.35명으

로 비청년농업인의 2.33명보다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이하에서 청년의 비율이 2.7%로 낮은 것에 반해 비청년의 비율은 61.8%로 절반 이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대학(4년제 미만) 이하의 비율은 청년이 67.3%, 비청년이 31.3%로 나타났으며, 대학(4년제 이상) 이상의 비율은 청년이 30.3%, 비청년이 6.9%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농업경영 특성을 살펴보면, 전업의 비율이 비청년농업인의 경우 55.7%인 것에 반해 청년농업인의 경우 31.9%로 나타났으며, 겸업 비율은 청년이 68.1%로 비청년의 44.3%보다 높았다. 주 작목의 경우, 과수, 축산에서 비청년보다 청년농업인의 비율이 높았다. 논벼에서는 청년이 33.4%로 비청년의 41.9%보다 낮았으며, 식량작물의 경우에도 청년 10.7%, 비청년 12.6%로 청년의 비율이 낮았다. 채소의 경우 약 1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과수의 경우 청년이 17.9%로 비청년 15.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용/약용 작물과 화훼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축산의 경우 청년이 11.8%로 비청년의 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작면적은 청년농업인이 1.64ha, 비청년농업인이 1.20ha로 청년농업인의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판매처는 청년과 비청년에서 모두 농협/농업법인의 비율이 높아, 청년농업인이 35.5%, 비청년농업인이 38.4%로 나타났다. 소비자 직접 판매는 청년이 22.3%로 비청년의 28.0%보다 낮았으나, 도매시장의 경우 청년이 9.7%로 비청년의 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액에서는 5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청년과 비청년에서 모두 높았는데, 청년농업인이 43.6%, 비청년

1)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축산물판매금액을 구간값으로 조사함(① 판매없음, ② 120만원 미만, ③ 120~300만원 미만, ④ 300~500만원 미만, ⑤ 500~1천만원 미만, ⑥ 1천~2천만원 미만, ⑦ 2천~3천만원 미만, ⑧ 3천~5천만원 미만, ⑨ 5천~1억원 미만, ⑩ 1억~2억원 미만, ⑪ 2억~5억원 미만, ⑫ 5억원 이상).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통계청, 2018)에서 2015년 농업총수입(농작물수입, 축산수입, 농업잡수입)이 33,654천원인 것에 근거하여, 3,000만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함.

(표 2) 청년농업인과 비청년농업인의 영농특성 교차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청년	비청년	계	χ^2	
농업 경영주 특성	성별	남	13,053 (90.9)	881,252 (82.1)	894,305 (82.2)	750.417***
		여	1,313 (9.1)	192,739 (17.9)	194,052 (17.8)	
		계	14,366 (100.0)	1,073,991 (100.0)	1,088,357 (100.0)	
	배우자 유무	있음	10,799 (75.2)	838,185 (78.0)	848,984 (78.0)	68.223***
		없음	3,567 (24.8)	235,806 (22.0)	239,373 (22.0)	
		계	14,366 (100.0)	1,073,991 (100.0)	1,088,357 (10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3 (2.7)	663,676 (61.8)	664,059 (61.0)	24470.415***
		대학(4년제 미만) 이하	9,673 (67.3)	336,536 (31.3)	346,209 (31.8)	
		대학(4년제 이상) 이상	4,310 (30.0)	73,779 (6.9)	78,089 (7.2)	
		계	14,366 (100.0)	1,073,991 (100.0)	1,088,357 (100.0)	
전·겸업 여부	전업	4,279 (31.9)	587,105 (55.7)	591,384 (55.4)	3052.748***	
	겸업	9,140 (68.1)	466,101 (44.3)	475,241 (44.6)		
	계	13,419 (100.0)	1,053,206 (100.0)	1,066,625 (100.0)		
주 작목	논벼	4,488 (33.4)	441,507 (41.9)	445,995 (41.8)	1737.995***	
	식량작물	1,440 (10.7)	133,120 (12.6)	134,560 (12.6)		
	채소	2,412 (18.0)	191,607 (18.2)	194,019 (18.2)		
	과수	2,406 (17.9)	165,789 (15.7)	168,195 (15.8)		
	특용/약용	622 (4.6)	47,375 (4.5)	47,997 (4.5)		
	화훼	254 (1.9)	13,636 (1.3)	13,890 (1.3)		
	축산	1,586 (11.8)	1,586 (4.8)	52,230 (4.9)		
	기타	211 (1.6)	9,528 (0.9)	9,739 (0.9)		
	계	13,419 (100.0)	1,053,206 (100.0)	1,066,625 (100.0)		
주 판매처	농협/농업법인	3,971 (35.5)	342,185 (38.4)	346,156 (38.4)	546.478***	
	소비자 직접 판매	2,488 (22.3)	248,935 (28.0)	251,423 (27.9)		
	도매시장	1,090 (9.7)	50,991 (5.7)	52,081 (5.8)		
	기타	3,631 (32.5)	248,123 (27.9)	251,754 (27.9)		
판매금액	계	11,180 (100.0)	890,234 (100.0)	901,414 (100.0)	1653.422***	
	500만원 미만	5,857 (43.6)	566,267 (53.8)	572,124 (53.6)		
	500~3,000만원 미만	4,071 (30.3)	340,547 (32.3)	344,618 (32.3)		
	3,000만원 이상	3,491 (26.0)	146,392 (13.9)	149,883 (14.1)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	계	13,419 (100.0)	1,053,206 (100.0)	1,066,625 (100.0)	335.433***	
	참여	3,985 (29.7)	242,164 (23.0)	246,149 (23.1)		
	미참여	9,434 (70.3)	811,042 (77.0)	820,476 (76.9)		
융복합사업 참여 여부	계	13,419 (100.0)	1,053,206 (100.0)	1,066,625 (100.0)	337.955***	
	참여	2,801 (20.9)	159,435 (15.1)	162,236 (15.2)		
	미참여	10,618 (79.1)	893,771 (84.9)	904,389 (84.8)		
농기계 보유 여부	계	13,419 (100.0)	1,053,206 (100.0)	1,066,625 (100.0)	282.724***	
	보유	7,567 (56.4)	668,039 (63.4)	675,606 (63.3)		
	미보유	5,852 (43.6)	385,167 (36.6)	391,019 (36.7)		
정보화기기 활용 여부	계	13,419 (100.0)	1,053,206 (100.0)	1,066,625 (100.0)	5484.414***	
	활용	5,918 (44.1)	198,021 (18.8)	203,939 (19.1)		
	미활용	7,501 (55.9)	855,185 (81.2)	862,686 (80.9)		
계	13,419 (100.0)	1,053,206 (100.0)	1,066,625 (100.0)			

*p<0.05, **p<0.01, ***p<0.001

농업인이 53.8%로 나타났다. 500~3,000만원 미만의 비율에서도 각각 30.3%, 32.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3,000만원 이상에서는 청년농업인이 26.0%, 비청년농업인이 1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생산자조직에 참여하는 비율은 청년농업인이 29.7%, 비

청년농업인이 23.0%로 청년농업인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융복합사업에 참여하는 비율도 청년농업인에서 높아, 청년농업인 20.9%, 비청년농업인 15.1%로 나타났다. 농기계 보유 비율은 비청년에서 63.4%, 청년의 경우 56.4%로 비청년에서 높았

〈표 3〉 청년농업인과 비청년농업인의 영농특성 t-test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농업경영주 특성	가구원 수 (명)	청년	13,419	3.35	1.464
		비청년	1,053,206	2.33	1.140
		계	1,066,625	2.34	1.150
농업경영 특성	경작면적 (ha)	청년	13,419	1.64	5.577
		비청년	1,053,206	1.20	2.939
		계	1,066,625	1.20	2.987

*p<0.05, **p<0.01, ***p<0.001

〈표 4〉 청년농업인의 농축산물 판매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변수명	우도비 검정		중소득 (500~3,000만원 미만)			고소득 (3,000만원 이상)				
		-2LL	χ^2	β	표준오차	Exp(B)	β	표준오차	Exp(B)		
농업 경영주 특성	상수항	14645.880	-	-2.625***	.196	1.326	-6.733***	.285			
	성별	남	14661.821	15.942***	.282***	.104	1.326	.586***	.153		
	교육 수준	대학(4년제 미만) 이하	14676.358	30.479***	.308*	.162	1.361	.790***	.224	2.203	
		대학(4년제 이상) 이상			.302*	.169	1.352	1.022***	.231	2.780	
농업 경영 특성	전·겸업 여부	전업	15106.552	460.673***	.908***	.067	2.479	1.637***	.078	5.139	
	주 작목	식량작물	16299.371	1653.491***	-.001	.117	.999	.181	.188	1.198	
		채소			.893***	.085	2.443	2.281***	.113	9.787	
		과수			1.258***	.081	3.517	2.100***	.113	8.163	
	주 판매처	특용/약용	16299.371	1653.491***	1.751***	.146	2.119	1.988***	.186	7.303	
		화훼			1.610***	.243	5.005	3.196***	.281	24.445	
		축산			2.290***	.135	9.870	4.799***	.153	121.361	
	주 판매처	경작면적	17197.612	2551.733***	1.121***	.225	3.068	2.340***	.274	10.382	
		소비자 직접 판매	소비자 직접 판매	15226.772	580.892***	-1.327***	.084	.265	-1.890***	.122	.151
			도매시장			.232*	.124	1.261	.697***	.136	2.007
			기타			.046	.072	1.047	.193**	.089	1.213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	14819.963	174.084***	.488***	.068	1.630	1.022***	.080	2.780		
	융복합사업 참여 여부	14720.575	74.695***	.587***	.078	1.798	.758***	.094	2.134		
	농기계 보유 여부	14751.265	105.386***	.404***	.059	1.497	.802***	.079	2.231		
	정보화기기 활용 여부	14771.408	125.528***	.388***	.060	1.474	.831***	.075	2.296		

Likelihood ratio test: $\chi^2 = 8625.230$ ***
 (Null model -2LL:23271.109 Alternative model -2LL:14645.880 df=38)
 Goodness-of-Fit: Pearson $\chi^2 = 4.451E+18$ ***
 Pseudo R-Square: Cox & snell R=0.538, Nagelkerke R=0.605
 *p<0.1, **p<0.05, ***p<0.01

다. 정보화기기 활용 여부에서는 활용하는 비율이 청년농업인은 44.1%, 비청년농업인은 18.8%로 큰 차이를 보였다.

4.2. 청년농업인의 농축산물 판매금액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변인으로서 농축산물 판매금액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

와 같다. -2LL의 변화량이 유의한지에 대한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ox & Snell R²과 Nagelkerke R²도 0.5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주 특성에서 성별과 교육수준 모두 농축산물 판매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을 살펴 보면 여성보다 남성일 때에 소득이 높았으며, 특히 고소득일 확

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며, 특히 대학(4년제 이상) 이상의 경우에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진다는 Mishra, A. K., & Morehart, M. J.(2001)와 Ashfaq, M., Hassan, S., Naseer, M. Z., Baig, I. A., & Asma, J. (2008), Mohammad S, S. (2005)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최재혁, & 고석남. (2005)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 특성에서는 전·겸업 여부, 주 작목, 경작면적, 주 판매처,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 융복합사업 참여 여부, 농기계 보유 여부, 정보화기기 활용 여부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일 경우 고소득일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최재혁, & 고석남(2005)와 일치했다. 주 작목의 경우 식량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에서 논벼에 비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목이 논벼가 아닌 경우에서 농산물 판매금액이 높았던 황영모, 신동훈, & 배균기(2016)의 결과와 일치했다. 경작면적의 경우에도 면적이 넓을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재혁, & 고석남(2005), 황영모, 신동훈, & 배균기 (2016), Ashfaq, M., Hassan, S., Naseer, M. Z., Baig, I. A., & Asma, J. (2008), Mohammad S, S. (2005)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주 판매처에서는 농협/농업법인에 비해 소비자 직접 판매의 경우에서 저소득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협/농업법인에 비해 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에서는 생산자조직에 참여할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융복합사업 참여 여부에서도 참여할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기기 활용 여부에서도 정보화기기를 활용할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황영모, 신동훈, & 배균기, 2016; Mishra, A. K., & Morehart, M. J., 2001, Ashfaq, M., Hassan, S., Naseer, M. Z., Baig, I. A., & Asma, J., 2008).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경영특성과 농축산물 판매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청년농업인 육성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청년농업인과 비교한 청년농업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청년농업인보다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

자가 있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비청년보다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 특성에서는 비청년농업인보다 청년농업인의 전업 비율이 낮고 겸업 비율은 높았다. 주 작목의 경우 과수, 축산 부문에서 청년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작면적에서도 청년농업인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2017)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주 판매처는 도매시장과 기타부문에서 비청년농업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에서도 청년농업인은 비청년농업인보다 고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기계 보유 여부는 비청년농업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조직에의 참여와 정보화기기 활용에 있어서는 청년농업인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청년농업인이 갖는 농업경영 특성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청년농업인의 교육수준이 높는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농축산물 판매금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농업인의 높은 교육수준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주 작목에서 청년은 과수와 축산에서 많은 비율을 보였는데, 농축산물 판매금액에서 논벼에 비해 식량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목에서 정(+)의 결과를 보였고, 특히 축산부문에서 강한 정(+)의 결과를 보여 청년농업인의 작목 선택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작면적의 경우 넓을수록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청년농업인에 비해 넓은 면적을 가지는 청년농업인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판매처 중 도매시장의 경우에서 청년농업인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농축산물 판매금액에서도 도매시장의 경우가 정(+)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농업인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와 융복합사업 참여에서도 청년농업인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두 고소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게 나타난 요인들이다. 정보화기기 활용 여부에서도 청년농업인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또한 정보화기기를 활용할수록 고소득을 보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청년농업인의 약점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겸업에서 청년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업의 경우에서 고소득일 확률이 높은 결과를 보았을 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농기계 보유 비율이 낮은 것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청년농업인의 강약점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보화기기 활용 능력은

영농에 있어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정보화 능력 등을 농업경영에서 발휘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경영 관련 기술 및 농촌 생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매체를 다각화하는 등, 정보·지식 전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전업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선적으로는 영농 소득 창출의 어려움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첫 번째 시사점과 연결시켜 소득 창출을 위한 영농의 다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선호에 따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지역 내에서 농업 외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원, 일자리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과수와 축산의 비율이 높은 청년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영농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농업인이 영농을 시작하는 데 있어 작목 선택은 여러 장벽 중 하나이다. 영농 지역의 환경과 유통 여건, 소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유입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농업인 수의 감소는 지역 내에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농업경영이나 생활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생산자조직을 비롯하여 지역 내 조직 활동에의 참여율을 높이거나, 비슷한 관심사로 소통할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년농업인의 낮은 농기계 보유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농업인은 비청년농업인에 비해 자본 부족 등의 문제로 농기계를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농기계 보유는 농기소득과 연결되므로 청년농업인의 농기계에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등 자본 등의 제약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황영모, 신동훈, & 배균기(2016)에서는 농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농가와 65세 이하 전업농가를 구분하여 경영분석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최재혁, & 고석남(2005)에서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구분하여 경영분석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농축산물 판매금액으로 경영성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농업 경영특성과 성과에 초점을 맞춰 청년농업인의 강약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소득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농축산물 판매금액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 결과로 전업일 때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농가 소득원의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에 적절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농업 경영의 성과를 제한적으로 나타내는 변인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농업 부문으로의 유입을 위해서는 농업 경영뿐만 아니라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정착제고 방안 등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강대구, 정철영, 이종상, & 이성식. (2005).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1), 105-130.
2. 강혜정. (2008).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의 특징과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35(4), 829-848.
3. 김기홍. (2018).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61-173.
4. 마상진, 엄진영, & 김경인. (2017).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48, 1-20.
5. 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 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마상진, & 김남훈. (2019).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42(1), 27-49.
7. 유찬주, 황진수, & 장동현. (2008). 농업경영자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작 농가의 사례. *산업경제연구*, 21(4), 1809-1824.
8. 이병기. (2000). 한국경제위기 이후 농가소득불균등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업정책학회*, 27(2), 27-49.
9. 임정빈. (2003).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논의 내용과 주요 쟁점. *농업생명과학연구*, 37(3), 83-90.
10. 장익훈, 문정훈, & 최영찬. (2014). 다중조직이론 기반의 농업경영체 경영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기법과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1(4), 1149-1189.
11. 최영창, 박은식, 고정숙, & 조영숙. (2007). 청년농업인

- 육성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의식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4(2), 351-371.
12. 최재혁, & 고석남. (2005). 한국의 농가소득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18(3), 1139-1159.
 13. 허장, & 정기환. (2003). 농촌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리더십. *농촌사회*, 13(1), 51-83.
 14. 황영모, 신동훈, & 배균기. (2016). 농가의 농업경영 전략과 농산물 판매성과 간의 관계분석: 농업총조사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6(2), 87-121.
 15. 小田切徳美. (2014). *農山村は消滅しない*. 東京: 岩波新書.
 16. Vatn, A. (2003). Multifunctionality in agriculture and compatibility with globalization. *농업사연구*, 2(1), 67-91.
 17. Ashfaq, M., Hassan, S., Naseer, M, Z., Baig, I, A., & Asma, J. (2008). Factors affecting farm diversification in rice-wheat. *Pakist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s*, 45(3), 91-94.
 18. European Commission. (2015). *Needs of young farmer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19. Hamilton, W., Bosworth, G., & Ruto, E. (2015). Entrepreneurial younger farmers and the “Young Farmer Problem” in Eng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61(4), 61-69.
 20. McNamara, K, T., & Weiss, C. (2005). Farm Household Income and On- and Off-Farm Diversific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37(1), 37-48.
 21. Mishra, A, K., & Morehart, M, J. (2001). Factors affecting returns to labor and management on U.S. dairy farms. *Agricultural Finance Review*, 61(2), 123-140
 22. Mohammad, S, S. (2005). Socio-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income of small-scale agroforestry farms in hill country areas in Yemen: A comparison of OLS and WLS determinants. *Small-scale Forest Economics, Management and Policy*, 4(1), 117-134.
 23. National Young Farmers Coalition. (2017). *Building a future with farmers*. Washington, D.C.: National Young Farmers Coalition.
 24. Zagata, L., & Sutheland L, A. (2015). Deconstructing the ‘young farmer problem in Europe’: Towards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Rural Studies*, 38, 39-51.

Received 16 August 2019; Revised 28 August 2019; Accepted 09 September 2019



Dr. Yong-Kyeong Jeong is a Postdoctoral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the social influence of urban-to rural migrants and young farmers.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yong1013@korea.kr
phone: 82-63-238-2655



Jeong-Im Hwang is a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and community development.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jihwang@korea.kr
phone: 82-63-238-2648



Yoon-Ji Choi is a Senior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on rural aging and rural in-migration.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veritas96@korea.kr
phone: 82-63-238-2645



Dr. Jung-Shin Choi is a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women and families.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spirit9515@korea.kr
phone: 82-63-238-2647